

주요 게임 플레이 리스트

정찬일

게임명	플레이시간	최종 레벨	투자 비용	게임 플레이 후기
리그 오브 레전드	10년	다이아4	500만원	2주마다 진행되는 밸런싱과 매 년 바뀌는 게임 시스템으로 항상 새로운 재미를 얻을 수 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1년	골드3	0만원	블리자드 IP가 대거 투입된 AOS 게임이지만 타격, 조작감 문제가 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년	비즈팀 풀착	5만원	RPG하면 떠오르는 대작으로 와우 클래식을 마법사로 플레이했다.
메이플스토리	5년	260	200만원	2D횡스크롤 RPG로 특유의 플레이 감성이 있으나 육성 난이도가 매우 높다.
로스트아크	5년	1620	200만원	재미있는 레이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나 필수적인 부캐릭터 육성으로 플레이 피로도가 높다.
에이펙스 레전드	1년	골드2	10만원	스피디한 플레이 시스템과 다양하고 독특한 기술의 요원들을 즐겁게 플레이했다.
오버워치	1년	3966점	50만원	툼피스트 이전까진 즐겁게 플레이했으나 밸런싱을 깨는 요원 출시 이후 후속 조치가 없어 아쉬웠다.
발로란트	1년	골드2	30만원	주로 감시자 영웅을 플레이했는데, 전략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입장에서 즐거웠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6개월	-	5만원	실제 시가지 전투에 투입된 요원이 된 것 같이 몰입하여 플레이했다.
피파 온라인 시리즈	5년	세미 프로2	100만원	내가 좋아하는 선수와 팀 케미를 맞추는 재미와 더불어 현금 투자 체감이 많이 느껴졌다.
NBA 2K 시리즈	3년	-	30만원	주로 마이 커리어 모드를 플레이했으며, 실제 농구 선수가 된 것 같이 몰입하여 플레이했다.
Raft	1개월	-	1만원	친구들과 간단히 즐겼으나 배 멀미가 생겨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For the King	1개월	-	1만원	TRPG장르 게임 중 가장 재밌게 했었다.
동물의 숲	1년	-	7만원	집을 증축하고 마을을 이쁘게 꾸미는 재미가 있었다.
별의 커비	3개월	-	7만원	다양한 무기를 먹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퍼즐스러운 재미가 있었다.
스타크래프트	5년	1600++	1만원	프로토스와 저그를 주로 다루고 초반 빌드를 많이 사용한다.
FM 시리즈	3년	-	30만원	짝수 시즌만 구매하여 플레이했으며 클럽의 감독이 된 것처럼 몰입하여 플레이
하스스톤	3년	전설	150만원	58사제, 주문사냥꾼 등으로 주로 플레이했으나 갈수록 요구되는 과금량이 부담됐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1년	-	20만원	그래픽에 감탄했으나 원했던 암살자의 모습이 아닌 학살자스러운 모습이라 아쉬웠다.
GTA5	6개월	-	10만원	스토리를 즐겁게 했지만 플레이어의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웠다.
PUBG	1년	-	20만원	즐겁게 플레이했으나 소극적인 핵 유저 대응이 아쉬웠다.
몬스터 헌터 월드	3개월	-	5만원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던 게임, 조총곤과 쌍검을 사용했는데 조작이 어려웠다.
마인크래프트	1년	-	3만원	서버를 구입해 친구들과 플레이, 주로 농사를 지으며 건축을 하면서 보냈다.